

천국과 역사에 대하여: Geerhaedus Vos의 수직주의 종말론

Michael Williams:Dordt College의 신학조교수

역자: 황 대 우
(고려 신학대학원 2년)

중년 회계원은 아리조나(Arizona)에서 은퇴할 세워놓고 있다. 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절약하고 저축한다. 한 대학생은 건축 설계(architectural design)에 관한 학위를 위해 연구한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기대하고 열망하며, 그리고 그 미래는 현재의 우리의 자세와 결정을 구체화 한다.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고, 퇴직을 계획하는 것, 혹은 학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존재를 위해 정해두는 목표들이다. 그것들은 부차적인 목표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게 된다.

인류의 첫번째 차원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계획해 놓은 미래라는 것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만큼 궁극적인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을 때, 예수께서는, 인간존재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자신의 깨닫음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종말론(Eschatology)이라 불리우는, 미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순한 해석학적이고 교의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즉, 우리의 종말론 이해는,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종말론은 우리의 세계관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Vos신학의 종말론적인 구조 (The Eschatological Framework of Vos's Theology)

Geerhardus Vos(1862~1949)는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종교라는 것을 신약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게 만든 선구자였다. 그는 1900년 초에 그러한 용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그 참된 기원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배태(bears)하고 있다.”¹⁾는 전제(datum)에 따라, Vos는 자연스럽게, 종말론이 더 이상 단순히 교의학의 부록이나, 끝에 붙은 추신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Vos는 주장하기를, “종말론은 기독론(Christology) 혹은 구원론(Soteriology)처럼, 기독교의 중심부분(centerpiece)이 되기를 요구한다.”²⁾

Vos는 단지, 동등한 지반(footing) 위에서 다른 교의적인 문제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 만은 아니다. 즉 그는 기독교 이해를 근본적으로 종말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신학을 개작한다. Vos에게 있어서, 기독론은 종말론적이다. 따라서 구원론은 종말론적이다. 그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성격이 기독교 자체(Christian existence)에 만연해 있으며 생명력을 준다고 믿었다. 그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희망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기독교적인 삶이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인 상황(context)에 대한 교회의 의식은, 교회가 구속(redemption)을 불완전하게 소화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미래 어느 날 구원 받을 것에 관해서는 아직 아니다(not yet)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³⁾

이 의식은, Vos에 따르면, 초대교회로 하여금, 종말(the eschaton)을, 주의 날의 완성(consummation)이 아직 미래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1) Geerhardus Vos의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0) p.25를 보라. 이것은 Geerhardus Vos의 단편들로써 Richard B. Gaffin 박사가 편집했다. (이 책에 대한 인용은 이후부터 SW로 표시함.)

2) Geerhardus Vos, 「The Pauline Eschatology」(Grand Rapids; Baker, 1979 [원판은 1930년에 출간]29. (이 책에 대한 인용은 이후부터 PE로 표시함.)

3) “[마지막 일들]에 애착을 갖는 관심은, 이미 시작된 것의 ‘완성’(perfected)을 보려는 열망, 즉,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관점 둘 다에서 충분히 정당화된 열망으로부터, 전적으로는 아니라해도 가장 번번히 일어난다. 물론, 본질적으로, 그 열망은,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오랜 거주와 예비 조건 아래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친숙하긴 하지만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미완성된 상태인 기독교 상태(Christian state)에 대한 습관적인 의식으로부터 발생하고, 그 의식으로부터 힘 (momentum)을 모은다”(PE42)

불구하고 현재의 그리스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규범적이고 결정적인 상태와 연관시켰다.

그들의 의식에서는 궁극적인 것이 이미 앞당겨졌다. 그것은 궁극적인 것의 빛에서 그들이 잠정적이고 예비적인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규범적인 것이고, 이전의 모든 단계는 그것에 따라서 그 궁극적인 것의 기독교적 성격의 참됨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PE 42)

이와같이, 종말에 관한 소망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가득차 있었고, 초대 공동체를 규정지웠다. 그리스도를 완성자(Consummator)로 이해한 것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써의 초대 교회의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방향성은 과거에 대한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앞을 내다보는(forward looking), 기독교의 참된 종말론적인 성격은 언약 역사에 있어서 교회 토대의 어떤 비역사적 단절(ahistorical lopping off)을 불가능하게 한다. Vos는 “종말론은 현저하게 역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같은 점에서, 종말론에 관한 신약의 역사적 상황화(historical contextualization)를 이해했다.

Vos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가 유기적으로 역사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인 최초의 인물 중 한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워졌던 것은 아주 옳은 일이다.(SW xiv)

Vos는 성경계시의 내용을 교리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역사적 내용(a redemptive-historical context), 일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내용(a context centered on the God who acts)을 분명히 나타낸다. Vos에게 있어서 “계시는 사건들을 뒤따른다”(revelation follows events)

계시의 점진적 성격(the progressive character of revela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에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미래에 일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다. 그 아래 사는 자들은 항상 과거를 회상한다. 즉 그들의 경건(piety)은 전통이라는 확실한 기초를 가진다. 심지어 점진하기를 열망할 때 조차도, 그들은 과거와 연계된 계속성 없이는 실체적이고

전전한 점진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만족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미래로부터의 심원한 기대에 간섭하고 싶어한다. 동시에 그들은 미래의 점진이 그들 자신이 획득한 권세나 권력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초자연적인 간섭과 활동이 달려있다고 믿는데, 그 간섭과 활동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산출해왔다. 성경적 종교는 그 관점에 있어서 철저히 종말론적이다⁴⁾.

성격역사는 모형론적으로 도형된 하나님의 행위들의 상황속에서 발생한다. 이와같은 약속과 성취의 역사적 도형은 동시적으로 단번에 성경의 실제적인 연속성을 성립시키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언약들을 가진 연속성을 기대한다. 성경계시에는, 역사적으로 진전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면이 제외된 채, 전부 혹은 충분히 고려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⁵⁾

기독교적 종말론적 긴장

(The Eschatological Tension of Christianity)

Vos의 종말적 기독교이해는 현재가 종말을 가진 긴장속에 놓여있는 역사적 경향(historical given)으로 취급한다. 이 “종말론적 이원론”(PE297)은 특히 바울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바울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대조적인 구조”(antithetical structure)를 드러낸다. “그 대조(antithesis)는 이 세상(세대)과 오는 세상(세대) 사이에 있다. 그 관점은 극적이다. 세 존재는 옛것에서 새것을 향해 추진하는 초자연적 역사의 세력들의 결과며 결말이다”(PE36). 현세대는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현재의 때(chronos)는 실체적인 새 질서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옆으로 비킨다. Vos의 직선적 역사관은 단순히 편리한 혹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것 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하게 역사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그것은 가장 극

4)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Old and New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1948)80. (이 책에 대한 인용은 이후부터 BT로 표시함)

5) “종교가 하나님의 전진적인 사역과 그와같은 구속으로 스스로를 휘감고 있는 곳에서는, 종교의 일반적인 응답은 예기적이고, 누적적이며, 전환기적이다 된다. 즉, 종교는 종교의 모든 본래적인 무게를 가진채 종말(the end)을 향해 끌려간다.”(PE335)
(Where religion itself around a progressiveness becomes prospective, cumulative, climacteric; it gravitates with all its inherent weight toward the end)

적인 실재론(realism)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드라마이며, 특히, 빠른 움직임으로 대단원과 절정(denouement and consummation)의 지점을 향해 서둘러가는 드라마이다"(PE 26)

성경의 종교는, Vos에 따르면, 현 세계에 관하여 솔직히 비판적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강림(tow advents) 사이에 있는 이 현세의 죄악됨(sinsfulness)을 정확히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의식(consciousness)은 불가항력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불러 일으킨다. 이 세대는 죄와 악에 절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오는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아래에 놓여 있다. 이 현세상, 혹은 세대는 악한 사회(evil associations)를 상기 시킨다: 사탄은 “이 세대(this aion)의 신”이다. 우주(Kosmos)는 세대(aion)와 마찬가지로 “윤리-종교적 판례에 사용될 경우”, 외연(denotation)을 지닌다.(PE 13)

절대적 구분은 오는 세대를 현세대에서 분리시키는데, 그것은 후자가 새로운 존재 양식과 “실제적인 새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오는 세대는 성령을 따르는(kata pneuma) 존재의 한 국면이며, 육신을 따르는 현 상태의 일과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교회는 “그 두 시대 사이에” 혹은, 동시에 두 세대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심지어 아직도 이 현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도, 오는 세대에로 이동되어져 왔다. 이와 같이, 교회는 두세대 즉 육신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대를 동시에 살아간다.

구속과 종말론(Redemption and Eschatology)

오는 세대는 “새 세대의 어린양”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에 예기적으로 기대되고 가까워졌다. 최대의 종말론적 드라마는 시작되었으며, 교회는 이미, 적어도 부분적으로, 종말의 축복과 특권의 수여자이다. 우리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고 만드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오는 세상의 빛이 분명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광휘를 현세상에 역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PE 43). 그리스도인은 예상되는 완성(consummation)에서 현재어로, 역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미래라는 것으로 현재를 해석한다.

그런데, 구속은, 예기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부딛혀오는 하나님

의 종말론적이 사역이다. Vos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구원론을 형성시킨다. “종말론적인 것은 구원론적인 것의 내용과 형식 둘다에 있어서 예정적인 것(predterminative)으로 나타난다”(PE60). 죄의 퍼짐(pervasiveness)에 대한 성경의 예리한 분별력으로 그 희망을 하나님의 미래 사역에 내려 놓는다는 사실은, “왜 신약의 구원 교리가 대부분은 그것의 종말론적 가르침과의 가장 밀접한 상호관련 속에서 성장해 있는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PE 26). 신자는 미래에 구속되어지는 것처럼, 현재에서도 구속되어진다. 신자는, 현재적으로 미래 상태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He persently possesses a foretaste of the future state). 현재적인 구원은 현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의 갑작스러운 도래로 말미암아 (by the inbreaking of the world to come) 산출되는 예기적인 결과이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Soteria)은, 그 용어의 유일한 가능성있는 개념이 종말론적이라는, 이러한 절대적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그와 같이, Vos는 바울의 구원의 의미(denotation, 외연)를 “을 진노로 부터의 구원”으로 해석한다.

종말론적 완성은 현재어를 침입하며, 신자를 그리스도안의 새 피조물로 변형시킴으로써, 그리고 신자의 내적 방향성, 관점, 혹은 종교적인 충성심을 바꿈으로써,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같은 올 세대의 축복들은 현재적인, 이 세상의 현상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현재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만 인식되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법정(de jure) 표현에 속한다.

종말론과 구원론은, Vos 사상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관심이 없는 구속적 종교는 분명히 모순으로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aionios zoe)이라는 구의 잣은 반복은, 신약이 어떻게 완전히, 규범적인 생명을 현저하게 종말론적인 생명으로 구상하는가를 보여준다. 종말론과 구원론은 종말론적인 드라마의 거대한 두개의 최종적인 사건, 즉 부활과 심판이다. 칭의(Justification)는, 죄에 의해 다스려진 세상에 관하여 미래가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기대(anticipation)이다. 부활은 죄의 통치의 희생이 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올 세대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 드러난다. Vos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 철저히 신중심적인 모습(theocentric image)이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산출하시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기초를 이루신다. 그 나라는 그곳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영한다. Vos의 개념에 있어서 그 나라란 최초의(premier) 종말론적인 모습(image)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에 불이신 큰 무게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신중심의 의식을 가지셨다는 이유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다. 그것은 그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의식을 통치하시는 왕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개념이다.⁶⁾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 선포에 선행하는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어질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이다. 즉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사건(state of affairs)이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심지어 메시야가 그들과 함께 역사속에 머무셨고, 그들이 그 나라를 현재적인 실재로써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요한 규범적인 현현(appearanec)은 미래에 속한다고 믿었다. Vos에 따르면, 파루시아(parousia)는 “현재임”(being present)이면서 동시에 “현재가 되어짐”(becoming present)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파루시아(parousia)는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함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왕이 현존하는 곳에, 또한 그 나라가 있다.

현재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는, Vos에게 있어서, 두개의 다른 나라들이 아니다. 그 나라는 두 국면 혹은 두 도래(tow coming)로 오는데, 즉 그것은 임박한, 영적-유기적인 도래와 세대의 마지막에 있는 아직 미래의 도래이다. 우리는 그 나라의 이러한 두 국면을 논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서로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않된다. 그 유기적인 나라는 그 나라의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현현(manifestation)으로 진입하며 전진하다. 그 나라의 두 국면 혹은 상태 사이의 차이는, 두 세대를 통한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나라의 현재적인 현

6) Geerhardus Vos,『The Reaching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and the Church』(Grand Rapids : Eerdmans, 1951)11. (이 책에 대한 인용은 이후부터 KC로 표시함)

현(manifestation)을 초래하며 또한 종말론적인 완성시에 그 나라의 최종적인 무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그 나라는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며 영적인 존재인 반면에, 종말론적인 나라는 홀연히 나타날 것이고, 완전한 물리적 우주를 그 나라의 능력과 통치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 나라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양국면 모두에 도래한다. 그것은 두 무대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임된(시작된) 그 나라는 위기로 말미암아 종결되어지는 것 외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현재의 영적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기적, 점진적인 활동은,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실재들과 죄 아래서 신음하는 물질적인 세상으로 말미암아 상대화되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혹은 완전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최종적 파국적인 사역(catastrophic act)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을 정복하고, 현재적인 나라의 어떠한 결핍들을(any deficiencies) 교정시킨다. 그와같이, 하나님의 미래적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난다. 이 마지막 때의 위기(This end-time crisis), 심지어 현재적인 나라의 능력을 가장 집요하게 적용하는 것 조차도(the most persistent application)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돌발적인 종말론”은 필요하다. 희심은 죄를 없애주지도, 죄로 말미암은 비정상성을 뿐만 아니라 채 뽑아버리지도 않는다(Conversion neither produces sinlessness in people nor eradicates abnormalities that result from sin). 우주는 윤리적인 동시에 구조적인, 종말론적 구속적 변형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언제 혹은 어떤 환경에서 현재적인 나라는 새것으로 나타나는가?

혹은 더 낫게는, 언제 도래할 나라가 옛것으로 침입할 것인가? Vos는 기록한다.:

우리는 그 영적인 나라의 점진적인 발전이 자동적으로 최종적인 상태에로 넘어간다고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영적인 나라:예주)가 어떤 지점(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진)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무대와 후자(최종적인 무대:예주)의 갑작스러운 도래(sudden super-vention) 사이의 일정한 관계는 있다. 이런 원리에 관한 가장 좋은 확증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자라가는 씨 비유에서 가르쳐진다. 그 밀은, 사람이 밤낮 자

고 일어나는 동안에 자라가지만, 사람은 그 어떻게 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면, 즉시 낫을 대는데, 이는 추수가 가까왔기 때문이다(막4:26~29). 무르익은 곡식은 추수의 때를 결정하지만(The condition of ripeness in the grain determines the arrival of the harvest), 그 곡식은 스스로 추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낫의 중재(interposition)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SW 300)

구속적인 나라(The Redemptiv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야적인 구원이 내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하는 은혜의 통치이다. 오는 세대를 특징지울 것은 축복과 영광의 완전한 복합은 그 나라의 모습(image) 아래와 포함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해방시키시고, 고치시며, 구원하시는 수단이다. 그 능력,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능력은 그것의 원천을 성령안에서 발견한다. 현재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미래적인 나라, 성령의 부여(endowment), 영향력(influence)을 예기하기 때문인데, 그 성령께서는 미래 상태의 참된 환경을 창조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나라의 조성자이시다. 성령의 현존과 사역은 그 나라의 두 국면 사이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성령께서는 “땅에서의 신자의 삶의 양상(mode)과 오는 시대의 천국에서의 삶의 양상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이다. 그와같이, 어떻게 첫 열매들과 추수가 성격상 동일시되어 질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분명해진다.”(PE301)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다. 그 나라와 생명은 상호 교환적 개념들이다”(SW 314). 예수께서는 요3:5에서 그 나라에 들어감과 새 생명에 들어감을 동일시 하신다. 거기에 언급된 그 생명은 구속받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오는 세대의 생명이다. “미래적인 복받음(blessedness)은 최고의 (par excellence)의 ‘생명’으로 나타난다”(PE 405). 그 나라의 현재적인 국면에 관하여, 미래적인 구원의 축복은 주로 법정적이다(forensic). 현 세대 동안에 신자에게 성경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좋은 예이다. 마태복음 6:13에 언급된 그 의는, Vos에게 있어서, 신자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 영광의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명령으로 여겨진다.

최종적인 회복은, 기독교의 윤리적 활동영역 혹은 심지어 영혼의 내적인 생명의 영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도래할 나라의 현현은 한층 더 가시적이거나 구체적인 형태로 그 나라의 축복들을 단순히 수여하는 것 이상이다. 종말적인 회복에서는,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모든 적들이 정복될 것이며, 밀과 가라지가 더이상 서로 뒤섞이지 않을 것이며, 의로 가득찬 만족과 하나님의 복내리시는 모습(beatific vision of God)이 향유될 것이다”(SW 309). 현재의 내적 혹은 윤리적 과정들은 이러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다. 오직 그 종말론적인 나라만이 그 나라의 충분한 축복과 특권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Vos의 종말론적 접근의 평가

(An Assessment of Vos's Eschatological Approach)

종말론에 관한 Vos의 재고는 여러가지로 칭찬할 만하다. 그가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성질에 대해 강조한 것은 실로 획기적이었다. Vos는 종말론을, 4세기 이후 좌천되어왔던 분파적인 주변(sectarian periphery)으로부터 교정시켰다. 화란의 Herman Ridderbos와 미국 복음주의 침례교인 George Ladd와 같은 다양한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Vos는 종말론을 신학의 정면에 있는 응접실(the front parlor)로 가져왔고, 참으로, 신학적인 기획(enterprise)의 참된 중심부로 가져왔다. 하나님은 원초적인 과거로부터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로부터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가 언약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미래와의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는 성경적인 계기가 역사적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말씀과 같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Vos의 주장으로부터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면적이고 비역사적인 문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역사의 선남선녀(historical men and women)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이다. Vos는 또한 성령과 종말론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특별히 개혁주의 교계(Reformed circles)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식론과 관계지워 온것 외에는, 성령론(pneumatology)에서 그것을 놓쳐 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Vos는 하나님께서 역사속으로 그리

스도를 새겨넣음으로써(by the divine incision into history in Christ) 발생된 종말론적인 긴장을 인식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 교회가 이 현재의 세대에 살아가지만, 또한 올 세대에 속하여 살아간다. 우주를 변형시키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그 힘은, 비록 아직(not yet)은 완전히 현재에 있지 않다 할찌라도 이미(already) 운동중에 있다. 예수께서는 종말론적인 인물이시다. 그의 부활은 일반적 종말론적인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중심부에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드라마는 시작되었다. 요약하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만일 그것이 신실하고 충분한 것이라면, 미래의 축복된 희망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축복된 희망을 소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Vos의 이원론(Vos's Dualism)

그러나, 우리가 Vos에게서 충분한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적절한 기반(foundation)을 발견하는가? 그가 서있었던 것과 동일한 신앙고백적인 전통속에서 있는 우리중에 누가, Vos에게서, 위에서 주목한 바 있는 통찰력을 제외시킨 채 종말론에 관한 개혁주의의 이해의 건축물을(building blocks) 찾을 수 있겠는가? 슬프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위해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완성하시는 역사적, 세계적 국면위에, Vos는 하나의 수직적인 긴장(a vertical tension), 하나의 자연-초자연의 이원론(a nature-supernature dualism)을 놓는다. 그가 확신하는 바에따라, 그는 역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싶어했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그 이상(ideal)을 형이상학적 언어, 즉 그가 그의 역사적인 관심사를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게 했던 하나님의 신플라톤주의(a neoplatonism)에 종속(포함)시켰다. 초월주의의 형이상학(transcendentalist metaphysics)적인 언어로 이야기 될때, 그 축복된 희망이라는 단어는 결코 종말론이 아니며, 단지 실제로 그 미래의 희망에 관한 극단적인 수직화(radical verticalization)일 뿐이다. 만일 그 미래가 그 해석학적 실마리를 현재에서 취한다면, 만일 종말론이 현재 기독교의 경험의 올바른 규범과 모범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종말, 즉 올 세대, 가질 세대를 어떤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What content are we

to understand the eschaton, the age to come, to have?) 우리는 어떤 용례로 그 종말론적인 사건을 해석하는가? Vos는 여기서, 하늘(heaven)이라는 이미지로써 진행한다. 하늘은 이상적이며, 다른 모든 실존하는 상태들이 심판되어질 수 있고, 비교되어질 수 있는 용례(paradigm)이다. “하늘은 또한, 하나님의 거처로써, 땅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물이 그 아래 순응해야하는 이상적인 형태이다”(SW 306). 하늘은 현상계에 영향을 주는 통제와 규제의 국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적인 능력의 창고이며, 이 물질계에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합처(gathering point)이다.

누구든지, Vos의 “종말론의 초월적인 형식”에서 그리고 그가 그러한 용어를 “타계성”(otherworldliness)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하늘의 중심성(centrality)을 깨닫게 된다면, 그가 “종말론은 무한히 초자연주의적이다”(PE62)라고 말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Vos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미래적인 세대의 작인(agent, 作因)이시기 때문에, 종말(eschaton)에 관한 땅의 기대는 이미 하늘에서 실현되어 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늘의 영역, 불가시적인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그러한 것들을, “최상의 의미에 있어서”종말(eschaton)의 무대(theater: 필자는 Plato의 이데아론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는 듯하다; 역주)이다. 하늘이 하나님에게서 그것은 원인(reason)을 발견하는 것처럼, 역시 미래도 하늘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 오는 세대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초월하여 있다(lies above). 이 미래에 대한 고양은 단순히 안내적인 혹은 도덕적인 것 이상이다. 오는 세대는 실제에 있어서 현상적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종말은 “지성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의 국면을 완전히 초월해 있는 것들의 어떤 상태이며,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후자로부터 발전되어질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와는 아주 다른 존재”이다(SW 307). 그런데 우리는 Vos가 어떻게 세대(age)와 세상(world)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볼 수 있다. 세대/세상은 미래의 때이든지, 혹은 현재의 물질적인 우주와 나란히 서 있는 완전히 다른 사건(state of affairs)이든지, 아니면 현재의 물질적인 우주를 “초월한”것이든지, 이들 중 하나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Vos는 세대/세상을 시간적인 용법(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에서 공간적, 형이상학적인 범주에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단지 그 종말을 현재에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시간적 연속성을 유지한다. 그가 세대와 세상을 거의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그 두 용어를 약간 다른 중량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와같이, Vos는 “오는세대”혹은 “미래적인 세상”에 관하여 동일하게 말하지만, 그의 언어를 “초월적인 세상”에 제한시킨다. 반면에 결코 “초월적인 세대”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Vos는 설명한다:

이 원리는 세대개념(the age conception)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 았다. 왜냐하면 시간의 연쇄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하나 의 세대가 존속되는 한, 다른 한세대는 병발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들과 상태들에 관해서는 다른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세 상과 상태의 존재가 다른 세상과 상태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으 며(여기서 Williams는 “does not include”라고 인용했는데, 아마 도 잘못인용한 것인지도, 오타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Vos는 그의 책에 “does not exclude”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역 주), 그리고 신자들이 둘다에 함께 속한다든지, 혹은 적어도 둘 중 어느하나에 보다 더 탁월하게 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보다 낮은 국면에서 보다 높은 국면으로의 중대한 중심의 변화를 통해 실제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메시아께서 보다 높은 세계으로 옮기심과 거기서 영원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과 같다.(PE 37; cf.12,46~7,59)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대망의 전환은, 그의 시민권과 합법적인 거주지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기독론적인 기초를 갖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며, 그와 함께 하늘에(in the heavens: 필자는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나누어서 복수를 사용한듯 하다; 역주)앉혀진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의 미래적인 기대는 상승운동(an upward movement)을 누린다. 매우 단순하게, Vos는 오는 세상/세대를 천국(heaven)과 동일시한다. 종말론적인 새 피조물은 천상적이거나 내세적이다. 여기서 이중성은 신자가 “그 시대들 사이”, 즉 올 세대와 마찬가지로 현 세대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신자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그의 실제적인 생명과 그의 참된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에로 안내되어지고 성령(the Spirit of God)의 완전한 소유를 인정할 때, 그는 또한 “하늘

의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올 세대는 바로 “최종적인 ‘천국 상태’(celestial state)”이다(PE 10: 참조. SW 422)

그와같이, 우리는, Vos에게 있어서 올 세대는 내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운동은 초월적인 세계를 향한 운동이다. Vos는 종말이 초월적으로 높여진, 이 세상과는 구분되는 천상적인 국면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증명하는 시간관(a time line)을 보여준다(PE 38)

원리적으로 실현된, 올세상

【하늘에서】	재림 미래 시대와 세계는 확실한 존재로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땅에서】

이 시대 혹은 세계

Vos가 종말을 하늘의 영역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거스틴적인 무천년설(Augustinian amillennialism)에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지복적인 이상(vision)에서 종말의 능력은 제거하는 종말론의 수직화(a verticalization of the eschatology)를 초래한다. 종말은,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이고 상승적인 시선에 흡수된다. 종말에 관한 이상(vision)이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실현되어 진다면, 육체의 부활로써 특징지워지는 미래관과 새 피조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어야만 한다.⁷⁾ 종말론적인 개신(renewal)의 성경적 메시지는 천상적인 희망으로 말미암아 폐기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우주의 개신과 회복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

그의 사상과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 사이의 “어떤 형식적인 유사점”을 허용하면서도, Vos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의미에서, Vos는 천국을 역사화하려 한다(to historicize heaven). 그는 기록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우주를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으로 나누는 철학적 이분법과 종말론적 양면성을 혼동

7) Peter J. Steen의 논고 “The Problem of Time and Eternity in its Relation to the Nature – Grace Ground – Motive”를 보라. 이것은 John Kraay와 Anthony Tol이 편집한, 「Hearting and Doing」(Toronto: Wedge, 1979)라는 책이 있다. p.139를 보라.

하는 것이다. 이 우주적 구분이 문제의 관점에 의해 전제되어 있지만,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미리 살고 있는 천국은 우주적인 하늘이 아니며, 철저히 구속적인 하늘이다(PE 40)

그와같이, Vos는 목적론적 조망을 그의 초월적인 종말론에 돌리려 한다. 이것이 그의 사상가운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한번만 나타나며 아무데도 역동적인 원리가 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책 도처에 나타나는 균형은 수직적 차원이 지배적이다. 수평적인 차원을 수직적인 차원에 종속시키는데, 이유는 하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존하는(uncreated)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종합하려는 Vos의 시도는 다만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가 그것의 진실한 목적을 오직 천국에서만 발견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현재의 존재의 대하여 비관적이기 때문에, Vos는 영지주의적인 세계도피의 책임에 대하여 민감하다. Vos의 자신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이해함으로써 주요한 존재론적 이원론을 붙잡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믿는다(PE 32).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재의 현상적인 존재와 갖는 교제는 문제거리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Vos가 하나님을 올 시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환원주의적으로 연합시키려는 경향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향력과 관심의 우선적인 국면은 하늘이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고전적인 존재론적 구분 이상이다. 하나님의 계급적, 형이상학적 원리가 이곳을 다스린다. 피조된 우주는 한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를 경험하게 하는 적절한 매개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친밀한 접근일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교에 있다”, 따라서, Vos에게 있어서 그 길은 이세상의 사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의 자연-초자연의 이원론에 따라, Vos는 시간성(temporality)을 영원성(eternity)에 반대되는 것으로 놓고, 시간성은 땅과, 영원성은 하늘과 동일시한다. 현 세상은 “악하고 일시적”이다. 반면에 올 세상, 즉 하늘-종말(heaven-eschaton)은 완전하고 지속된다. 헬라의 형이상학적인 공간적 범주들은 Vos가 스스로 신약 종말론 안에서 주의를 끌어온, 근본적으로 시간적인 범주들을 삼켜버리고 없애버린다. “시간

의 범주는 최종적인 상태가 정해지거나 혹은 하늘과 일치될 때, 공간적인 것으로 바뀌어진다. ‘세대’(aionion)과 ‘천국’(ouranion)은 함께 속하며 상호간의 친화력을 분명히 나타낸다”(PE 297: 참고.292). “계속되는-시간성”(restless-temporal)은 영원히 휴식할 수 있는 세대(aionion) 속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리도록 운명지워져 있다(PET 316; 참고. 1,6,296). 종말론에 관한 Vos의 이해는 시간을 당분간만 지속되는 것으로, 즉 종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보여진다. 종말은 영원히 성격을 통합시키는 불변하는 정적인 상태이다. 오는 세상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불변하는 성질은 크로노스(chronos: 역사와 더불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함; 역주)의 현재의 세상과는 정반대이다. 종말은 한계성과 시간성, 혹은 타락가능성(corrugability)이 없는 존재의 상태이다. 그것은 인간이 신적인 삶에 동참할 것이라는 국면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대해 평가 절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현상적인 우주를 묘사하는 참된 특성들과 특질들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Vos의 평가대로라면 물질(materiality)은 일시적이며 피조물은 시험적이다(probationary). 일시적인 것은 문화, 역사, 그리고 피조물이다. 궁극적인 것은 초월적인 것의 영역이다. 시간은 타락가능성과 동일시하며 시간은 영원한, 타락할 수 없는 하늘-종말(heaven-eschaton)과 대치시키는 것은, 신적으로 피조된 우주의 한 구성요소와 다를바 없는 시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Vos는 시각을 적절히 통제함(qualified glance) 없이 자신의 천국의 시민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세대의 신”(the god of this age)의 손에 우주를 넘겨주어 버렸다.

신약의 전환(The New Testament Reversal)

그런데, 성경은 Vos에 따르면 천상적인 희망에 관하여 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의 본질적인 존재를 영혼과 연관시키는 영적-육체적 이원론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구약은 외적인 것으로 싸여진 것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보았다”(SW 416; PE 362). 그와같이 구약은 그 이상(vision)을 피조물에 제한시켰고 그러한 환경(that milieu)에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정상적이고 만족한, 진실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죽임의

반대편인” 하늘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구약이 인간의 실제성과 삶을 현상계와 관계시켰던 반면에, 신약은 실제로 그 실체를 초월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한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동통으로써 우리는 구약 종교의 의식과 관점의 실제적인 “전환”(reversal)을 갖는다. 구약의 지상적인 소망의 수뇌가 바뀌고 “영원한 현재”的 종말론으로 변형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현현이나 부활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과정은 움직여 져 왔다. 실제적인 영적 생명접촉(life-contact)의 방향이 개입되자 마자, 시간이라는 평면위에서 수평적인 사고 운동은 즉시 초월적인 영역에로의 종말론적인 관심의 수직적인 투사에 그 길을 양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발전 아래에서 보다도 오히려 그 모든 종교적인 가치와 세력의 중심이 바로 그곳에 놓여있기 때문이다(PE 37).

신약 계시는 구약의 희망을 단순히 재해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약계시는 선지자와 시편기자가 고작 구름낀 흐미한 감지(cloudy glimps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이 현상계와는 완전히다른 실제적인 국면인, 이 현재적인 눈물의 가치를 흡수할 것으로운 명지워진 천상적인 도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같이 신약은 다만 구약에서는 제시되었을 뿐인 것, 즉 “옛것으로부터 공존하는 존재의 양면”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SW 28). 신약은 구약의 깊은 차원(depth-dimension)을 주석하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구분된 실제적인 국면을 침가시켰다. 그와같이 Vos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에서의 새로운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구약은 미래의 지상적인 희망(future terrestrial hope)을 가졌던 반면에, 신약은 한 사람의 실제적인 희망이 하늘에 놓여있다는 보다 충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싸우는 소리들(Competing Voices)

Vos는 자신의 다투는 두 원천을 허용하는데, 그것은 현 세계의 미래를 향하여 양면성(ambivalence)을 산출하는 성경적 자료와 계급적인 형이상학적 자료이다. 우선 그의 형이상학적인 자료를 따라서, 그는 “현세의 본질(substance)이 계속해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다(PE 209). Vos의 존재론적 구속력(commitment)은 성경적 계시

의 본질에서 보다는 오히려 그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는 때때로 피조물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나 섭리를 말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러한 화제를 위에 있는 고전적 교의학에 대한 엉성한 인사(cursory bow)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창조활동도,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의 보살핌(love-care)도, Vos가 생각하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Vos는 언제든지 종말론적인 회복의 성경적인 개념을 표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수직화된 조건을 가지고 나타난다. “현재 세계 본질의 소멸은 가르쳐지지 않는다. 비록 새로워진 땅이 남아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구속받은 자의 중심적인 거주지는 하늘에 있을 것이다”(SW 55).

물질적인 우주는 은혜로 소멸되고 파기되는가? 아니면 보존되는가? Vos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우주가 은혜로 소멸되고 파기되느냐 아니면 보존되고 정화되느냐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결과는 동일한 어느 한쪽의 길이다. 왜냐하면 땅의 종말(eschaton)을 향해 존속한다면 땅은 종말에 거주할 영혼들의 적당한 안식처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미래적인 부활은 현재 육신의 상태와는 전적으로 다른 체질(constitution)을 제공할 것이다. “완성된 상태에서의 ‘육신과 피’는 영적인 변형으로 대치되어질 것이다”(SW 421). Steen이 초월적인 종말론의 인간학을 정확히 요약했던 것처럼, 그 상태의 영적인 육체는 “육신이 없고(non-freshly),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영원한 육체이면서(heavenly-adapted etdrnal body), 성(性)도 없고 먹을 수도 없으며(sexless and unable to eat) 영원하고 초월적인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138)”. 실제의 물질적인 구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 천상에서 계시되어진다. 물질적인 점은 문자적으로 “사라지기 위해 단숨에 들이켜 지는” 것이다. (PE. 207의 각주: Vos는 καταρούη에 대한 문자적인 풀이를 “Drunk down so as to disappear”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 땅이 지속되어질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여기서 한마디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땅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죽은 행성과도 같을 것이며, 땅과는 대조적인 구조를 가진 생명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일 것이다.

완전히 어거스틴적인 방식으로, Vos는 은혜를 회복으로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희망을 유치하게 문자화하고 구체화하

는 천년설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Vos에게 있어서, 창세기의 하나님은 창조 대상이었던 우주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거나 회복한다는 개념은 시간성(temporality)과 초월성(transcendental)사이의 절충(compromise)이다. 그러한 절충은 변함없이, 초월적인 영역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킨다. “천국의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전망은 시간적인 전경 안에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모양들에 의해 거의 사라져버리곤 한다” (PE 77: 참조277; SW 418). Augustine에 따라서, Vos는 시간적인 것과 불가능한 초월적인 것을 약간 종합화한다. 그 둘 중 하나는 주도적이어야 하며 게다가 그 주도권은 다른 하나님을 흡수하거나 소멸시켜야 한다. Vos는 Augustine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운명을 초월적인 영역에 두었다.

그 점에 있어서, 적어도 Vos의 형이상학적인 구속력(commitments)에 따라서, 충성(fealty)은 피조물과 하나님 양쪽 다의 덕택이라 할 수 없다. 종교적인 시선은 초월적인 영역으로만 방향지워진다.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지루한 느낌과 천상적인 상태를 향한 조용하고 명상적인 기대로 끝난다.

상당한 안식없음(restlessness)으로 특징지워지는, 이전 시기 [구약]의 열렬한 앞을 향해 뻗어가는 운동은, 여기서 다른 세계와 그 세계의 내용에 대한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관조적인 태도로 바뀐다……. 그것은 얻어진 충분한 잠정적인 만족의 결과로 씨 어느 정도는 고통스럽게 까지한 심각한 짚주림에 대한 느낌을 극복해가는 전조가 된다. 부분적인 향유는 오히려 참된 음식에 대한 식욕을 풍부하게 자극시켜왔다(PE 40).

그와같이 명상적인 자연-초자연의 문제사항은 피조물의 회복과 개신으로써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철저히 폐기한다. 종말론은 잊어버렸던 것의 회복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새로운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양상에서만 그렇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아니에 대한 Vos의 강조 역시 잊게된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오 주여! 언제까지니이까?”라고 묻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서 예배드릴 뿐이다. 종말론은 송영(doxology, 영광의 찬미)으로 축소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위에 유일하게 거하는 것은 단지 송영과 침묵(quiescence)을 이끌어 낼뿐이다. 그러나 창조주와 성부와 그리고 구속

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하는 것은 응답과 복종과 변화를 산출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다. 후자는 또한 예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는 충실한 언약이다. 우리는, 여기서 Vos가 이 세상의 삶에 관한 단순한 희망없음(hopelessness)을 지나치게 넘어서거나, 혹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실제적인 현재의 개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심을, Vos가 지나치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Vos는, 그것이 초월적인 영역에의 궁극적인 복종이전에 존재함으로써 피조물을 향한 무관심에 도달했다.

기독교의 행동주의(activism)가 Vos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항상 기도독교의 천국의 목표에 대한 시작을 잊게 할 위험을 무릅쓴다. 그와 같이 그는 신앙의 지상화(terrestrialization)를 거의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독교의 사회적 행동을 잊어버리도록 만든다(PE 364-5; 참조 359). 하나님 나라에 현재적인 활동 무대는 비가시적이고 영적이며, 철저히 윤리-종교적이다(ethico-religious).

창세기의 문화명령(mandate)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의 대표로써 가능할 적당한 장소나 여지는 전혀 없다.

결 론(Conclusion)

종말론에 대한 Vos의 재고는 성경의 강조점을 역사에 두는 즉, 현재의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의 긴장을 가진 용어에 이르도록 시도했다. 불행히도, Vos는 자연-초자연의 이원론의 허용함으로써 그 가장 가치있는 기획을 결길로 빠지게 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메시야의 구원이 내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Vos의 통찰력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인간의 영혼이나 삶의 몇몇 개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범위에 있어서 우주적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구속의 목적은 전 우주의 회복과 같은 것이다(엡1:9 ~19; 골1:19~20; 롬8:19~21; 고후5:18~19). Vos가 스스로 주목했던 것처럼, 구약의 희망은 항상 땅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는 그 동일한 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구약은 어느곳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비육체적이고(bodiless), 비물질적

인 (nonmaterial) 것으로, 혹은 순수하게 영적인 사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Herman Ridderbos는 자신의 논증적인 손가락으로 Vos를 지적하면서, “땅은 실제적인 목적이며…… 종말론적인 드라마의 영역이다”⁸⁾라고 말했다.

Ridderbos의 논편에 의해 제한된 이 세상의 종말론은 오히려 한 개혁주의 신학자로부터 온 놀라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결국, 개혁주의 신학은 주로 그의 무천년주의(amillennialist[nonmaterialistic])종말론에서 있는 Augustine을 따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20권 7장에서, Augusntine의 이 세상의 종말관을 “육적인 인간(carnal men) 외에는 살찌고 뚱뚱해지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⁹⁾는 것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Vos의 종말론은 Augustine의 무천년설과 완전히 일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의 종말론적인 긴장에 대한 Vos의 이 연구는 Oscar Cullmann와 Hermann Ridderbos와 Anthony Hokema, 그리고 심지어 전천년주의자인 George Ladd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쳐, 회복적인 종말론의 실제적이고 중요한 진보들을 가져오게 했다.

참고: 번역물

- ① G.Vos 「The Pauline Escharology」—「바울의 종말론」, 이승구, 오광만 역, 엠마오(부록인 “Eschatology of the Psalter”을 제외한 번역물임)
- ② G.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성경신학」, 이승구 역, 기독교 문서 선교회
- ③ G. Vos, 「The Teaching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and the Church」—「하나님의 나라」, 정정숙 역, 개혁주의 신행협의
- ④ G.Vo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The Modern Debate About The Messianic Consciousness」—「예수의 자기계시」, 이승구 역, 엠마오
- ⑤ Herman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바울신

8) Herman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Grand Rapids: Eerdmans, 1975) 535, 각주.132

9)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제2권(New York: Dutton, 1945)

학」, 박영희 역, 개혁주의 신행협의
⑥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하나님의 도성」, 조호연, 김종흡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